

Next Energy

SpaceX 가 가스터빈까지 만드는 이유



주간 주요 기업 주가 변동

- **배터리:** SK 이노베이션(+18.3%), BYD(-5.5%), Fluence(-4.9%), CATL(-4.6%)
- **원자력:** 두산에너지(-10.2%), Nuscale(+4.4%), Centrus(-1.1%), Cameco(+0.7%)

빅테크의 전력 내재화가 발전, 전력기기 공급망으로 확산될 전망

엘런 머스크는 최근 G20 회의 연설에서 AI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전력 인프라 확충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반도체 공급이 연간 40~50%씩 증가하는 반면, 전력 공급은 같은 속도로 늘어나기 어려워 2027년에는 전력이 최소 15GW 부족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향후 10년 내 10억 대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AI가 데이터센터를 넘어 로봇·자동차·공장 등으로 확산될수록 전력 수요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AI 인프라와 전력 인프라의 증설 속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GPU와 서버는 수개월 내 증설이 가능하지만 발전소, 송전망, 변전소는 인허가와 건설에 수년이 필요하다. 여기에 변압기와 가스터빈 등 핵심 전력기기의 공급기간까지 길어지고 있어 데이터센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GPU를 확보한 뒤에도 실제 전력을 공급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AI 시대에는 전력 가격보다 언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가 데이터센터 수익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SpaceX가 가스터빈 공급망에 직접 진입한 점이 주목된다. SpaceX는 텍사스에서 가스터빈용 블레이드의 자체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품은 1,000°C 이상의 고온과 고속 회전을 견뎌야 해 니켈계 초합금과 정밀 주조 기술이 필요한 대표적인 병목 부품이다. 머스크는 이를 내재화하면 가스터빈 가동 시점을 최대 18개월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스터빈은 원전보다 건설기간이 짧고 출력 조절이 가능하며, 데이터센터 인근에 직접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망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 자체 전원을 공급하는 브릿지 전원으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하다. SpaceX가 가스터빈 블레이드까지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것은 빅테크의 수직계열화가 반도체를 넘어 에너지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AI 인프라의 핵심 자산이 될 전력 인프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주간 주요 뉴스

삼성SDI, 글로벌 ESS 기업에 LFP 배터리 공급
규모는 수조원대이며 미 스타플러스 에너지(SPE) 공장에 전용 LFP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 관련 장비 발주 또한 시작

SK온, 메네모볼타파워와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2027년부터 5년간 총 9GWh의 ESS용 LFP 배터리 셀 공급, 추가 계약 포함 18GWh 협력 추진. 계약 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예상

한국전력, 미 EPRI와 송변전 핵심기술 협력
±500kV HVDC 선로 운영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변압기 부상 진단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

LG에너지솔루션, 탄산리튬 장기 공급 계약
미 스맥오버 리튬과 약 2조원 규모의 계약 체결, 2029년부터 10년간 매년 8천톤의 배터리 등급 탄산리튬 조달

주간 지수 및 기업 시가총액 변화

(₩조원, 십억달러)	RECENT	증감(%)
KOSPI	6,687	▼1.5
KRX 2차전지	3,665	▼2.2
KRX 유틸리티	912	▼4.5
LG에너지솔루션	84	▼3.1
삼성SDI	44	▼4.0
SK이노베이션	23	▲18.3
LG화학	20	▲1.8
포스코퓨처엠	16	▼1.4
두산에너지빌리티	51	▼10.2
Tesla	1,398	▲1.5
CATL	247	▼4.6
BYD	111	▼5.5
Fluence	2	▼4.9
Nuscale	4	▲4.4
Centrus	3	▼1.1
Cameco	44	▲0.7

도표1. 월간 EV 판매량 추이

(천대)		26.07	26.06	25.07	MoM(%)	YoY(%)	1Q26	2Q26	QoQ(%)
글로벌		1,496	1,710	1,181	(12.5)	26.7	3,182	4,525	42.2
지역별	중국	975	1,025	744	(4.9)	31.0	1,722	2,749	59.6
	아시아	146	154	80	(5.4)	81.3	360	415	15.2
	서유럽	186	240	118	(22.5)	57.8	487	578	18.6
	북미	89	92	136	(3.8)	(34.9)	253	286	13.1
브랜드별	폭스바겐	64	79	80	(19.1)	(20.3)	191	221	16.1
	GM	12	13	22	(5.2)	(43.7)	33	43	31.6
	테슬라	166	221	144	(24.9)	15.1	461	553	20.0
	BMW	34	45	39	(24.9)	(13.4)	93	115	23.4
	현대기아	58	62	48	(6.2)	21.1	143	179	25.5
	BYD	278	259	205	7.3	35.9	429	702	63.7
서유럽	폭스바겐	45	47	35	(5.2)	26.3	118	126	7.4
	GM	0	0	0	(75.0)	(96.8)	0	0	(60.0)
	테슬라	4	33	5	(89.1)	(22.3)	47	55	15.9
	BMW	19	22	15	(13.3)	31.7	39	52	34.4
	현대기아	17	17	10	1.4	65.3	36	45	25.3
	BYD	8	10	5	(20.3)	55.1	23	26	11.0
북미	폭스바겐	1	2	12	(29.7)	(89.3)	4	6	32.7
	GM	8	9	19	(16.2)	(60.4)	26	31	19.3
	테슬라	43	45	48	(3.2)	(10.4)	117	125	6.4
	BMW	2	2	4	2.6	(46.2)	5	7	30.6
	현대기아	7	6	12	28.3	(40.5)	18	22	22.3

자료: MarkLines,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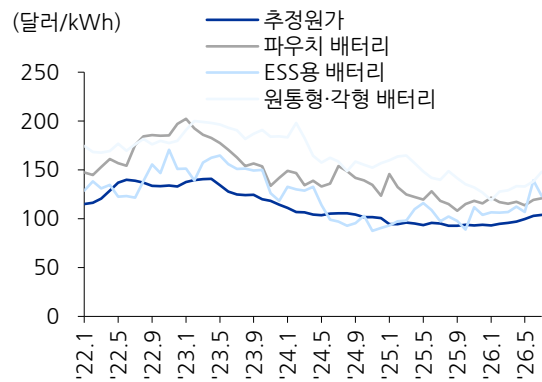
주: EV Only, 서유럽은 5 개국(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기준

도표2. 월간 전력통계속보

	26.06			26.05			MoM(%)		
	전력판매량 (GWh)	전력판매수익 (W bn)	평균판매단가 (W/kWh)	전력판매량 (GWh)	전력판매수익 (W bn)	평균판매단가 (W/kWh)	전력판매량 (GWh)	전력판매수익 (W bn)	평균판매단가 (W/kWh)
합계	43,269	7,580	175	40,931	6,495	159	5.7	16.7	10.4
주택용	6,617	1,031	156	6,061	914	151	9.2	12.8	3.3
일반용	11,130	1,944	175	9,801	1,578	161	13.6	23.2	8.5
교육용	729	111	152	601	80	134	21.4	37.8	13.5
산업용	22,675	4,279	189	22,387	3,710	166	1.3	15.3	13.9
농사용	1,551	139	89	1,399	128	91	10.9	8.6	(2.1)
가로등	255	44	172	275	44	161	(7.5)	(0.7)	7.4
심야전력	311	33	105	407	40	99	(23.6)	(19.4)	5.5
	26.06			26.05			MoM(%)		
	발전설비용량 (MW)	발전전력량 (GWh)	가동률 (%)	발전설비용량 (MW)	발전전력량 (GWh)	가동률 (%)	발전설비용량 (MW)	발전전력량 (GWh)	가동률 (%p)
합계	159,413	47,829	41.7	159,095	45,546	38.5	0.2	5.0	3.2
Nuclear	26,050	14,264	76.1	26,050	14,236	73.5	-	0.2	2.6
Coal	40,767	15,511	52.8	40,767	12,079	39.8	-	28.4	13.0
LNG	46,276	11,025	33.1	46,276	11,661	33.9	-	(5.5)	(0.8)
Oil	162	3	2.6	162	3	2.5	-	-	0.1
Water	6,516	605	12.9	6,516	644	13.3	-	(6.1)	(0.4)
Renewable	39,112	6,267	22.3	38,793	6,761	23.4	0.8	(7.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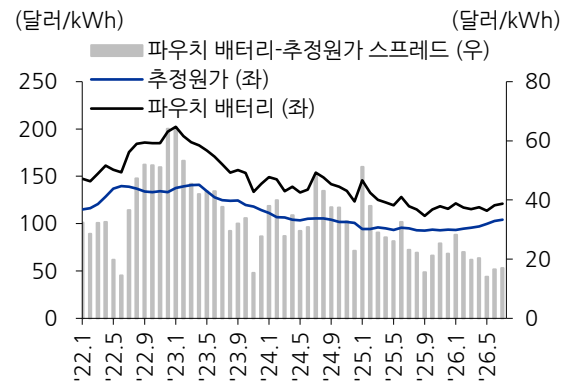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유진투자증권

도표3. 배터리 가격 및 원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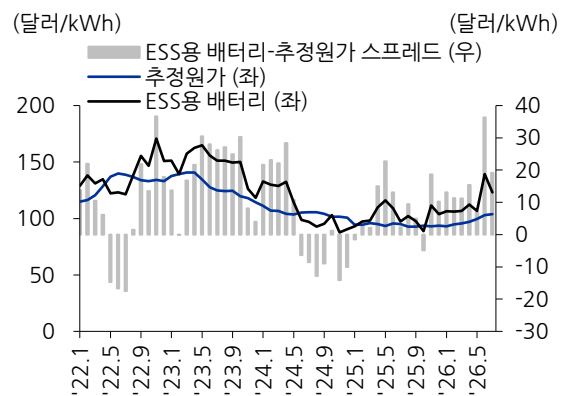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4. 파우치 배터리 가중평균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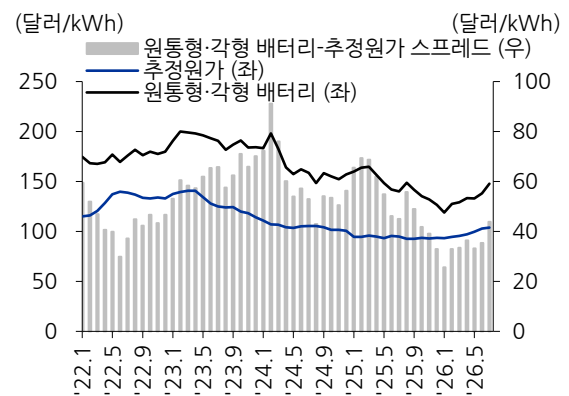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5. ESS 배터리 가중평균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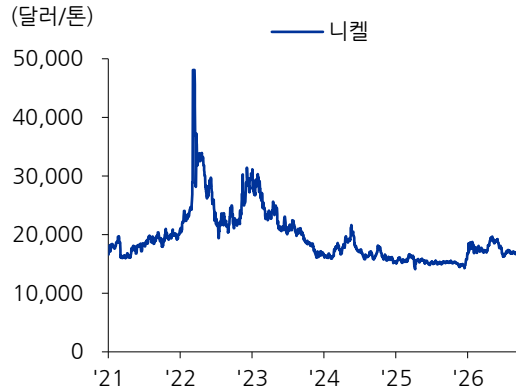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6. 원통형 배터리 가중평균 스프레드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7. 니켈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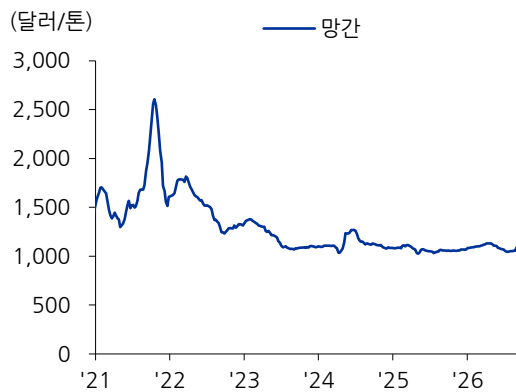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8. 코발트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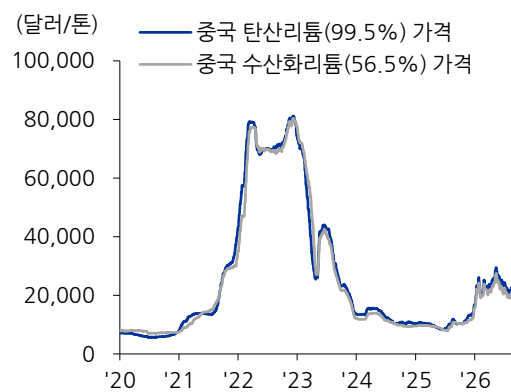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9. 망간 가격 추이



자료: KOMIS, 유진투자증권

도표10. 리튬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11. 알루미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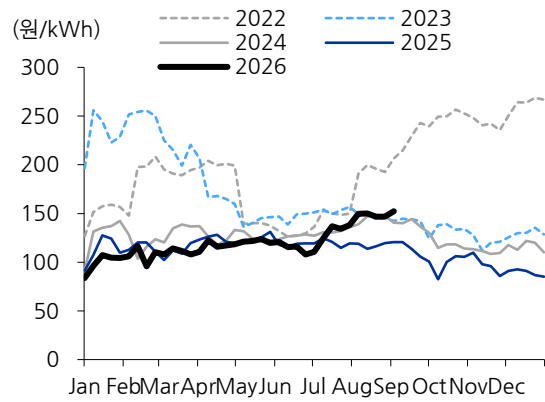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12. 구리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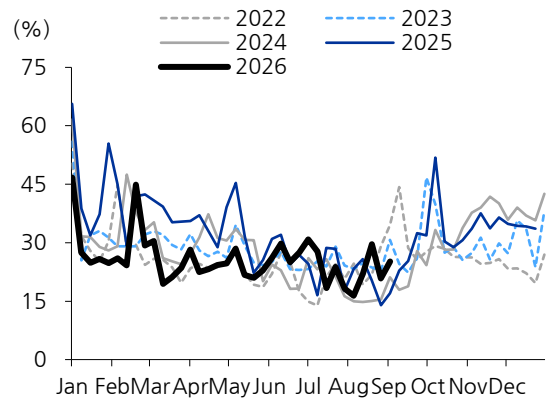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13. SM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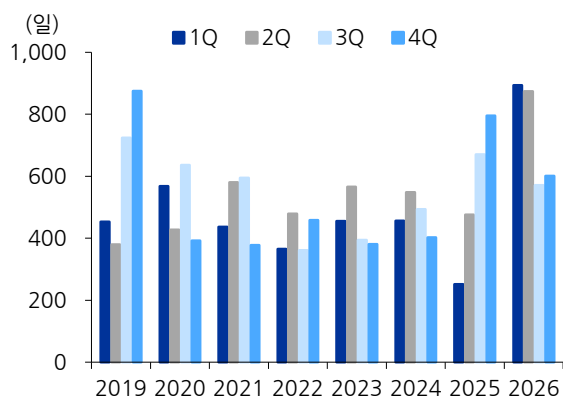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4. 주간 평균 전력공급 예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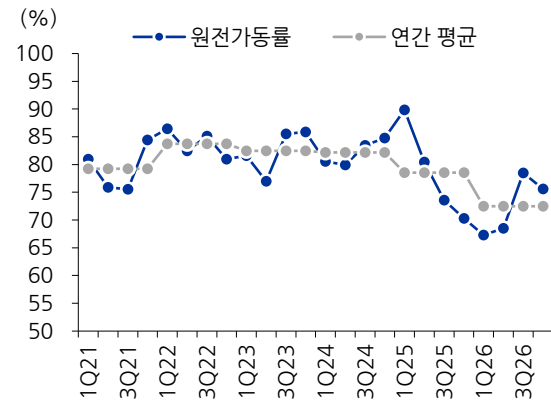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5. 원전정비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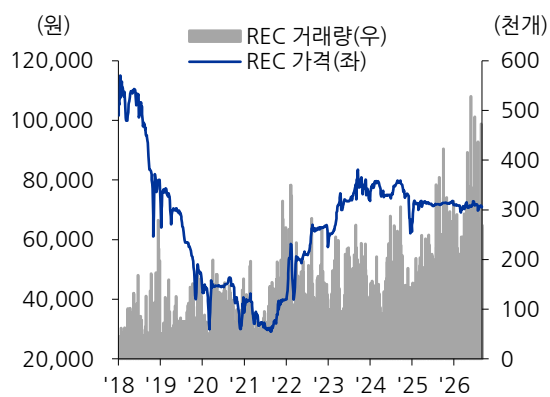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유진투자증권

도표16. 원전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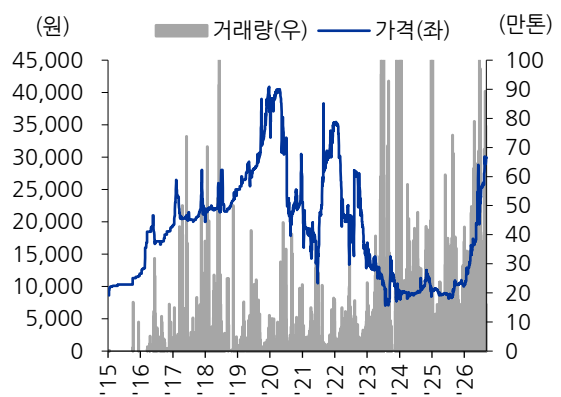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유진투자증권

도표17. REC 거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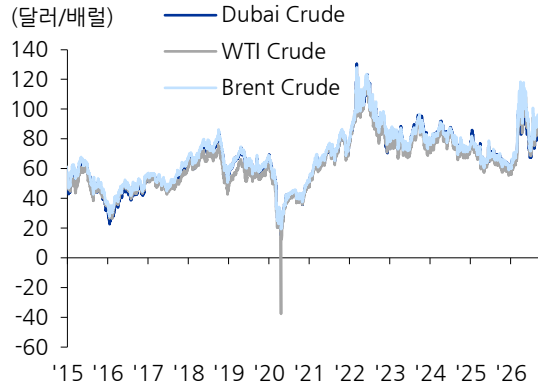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8. ETS 거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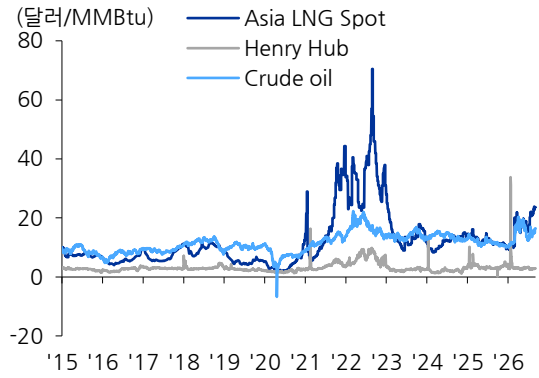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9.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0. 국제 에너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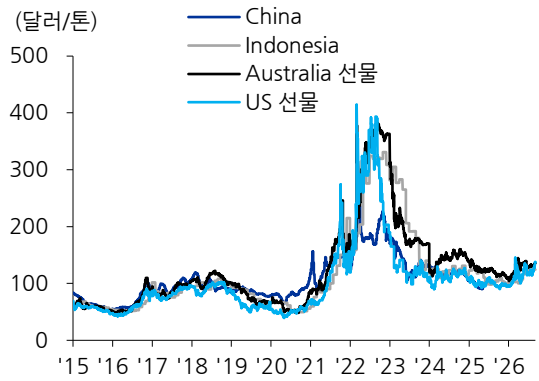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1.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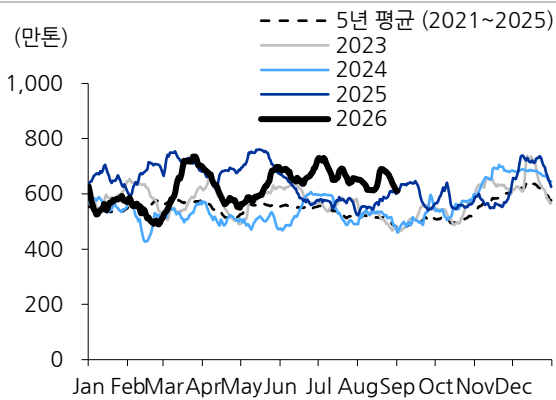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2. 지역별 석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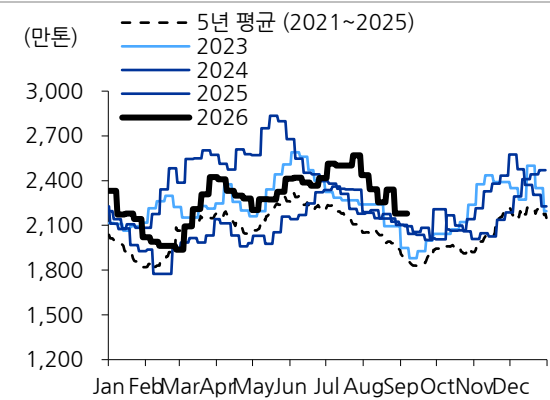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3. 중국 Qinhuangdao 항 석탄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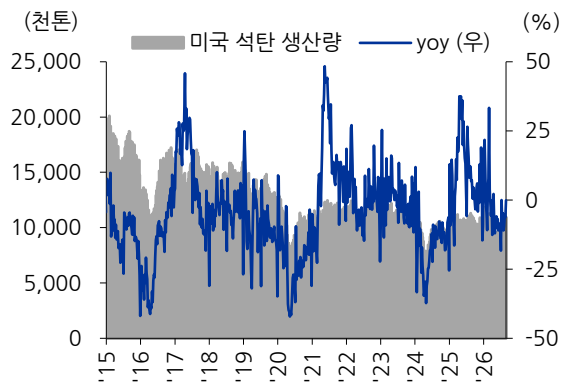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4. 중국 발전용 석탄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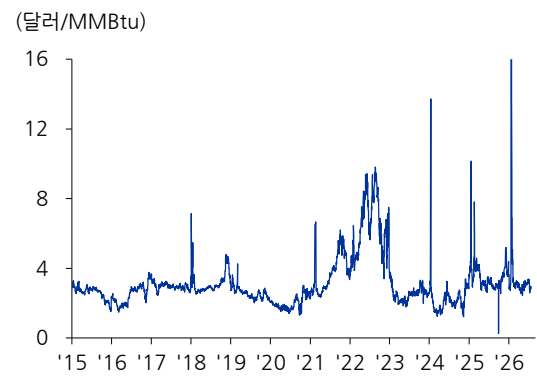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5. 미국 석탄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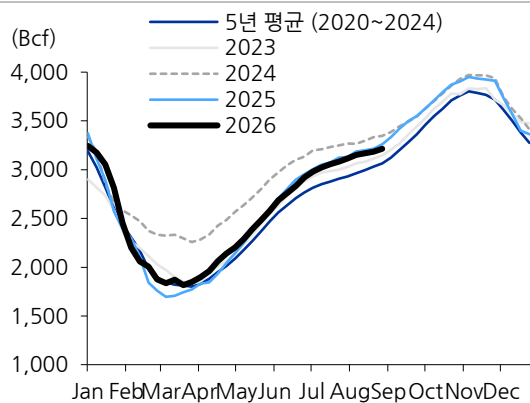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26. 미국 Henry Hub 천연가스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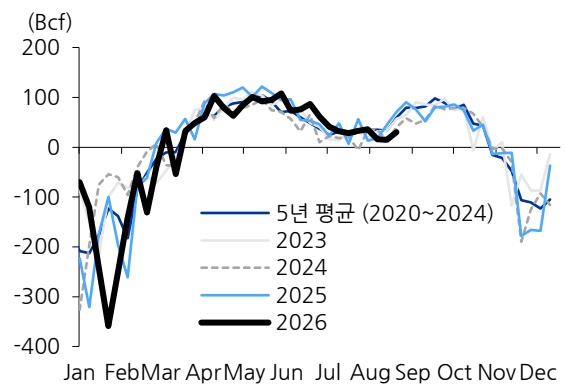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7. 미국 천연가스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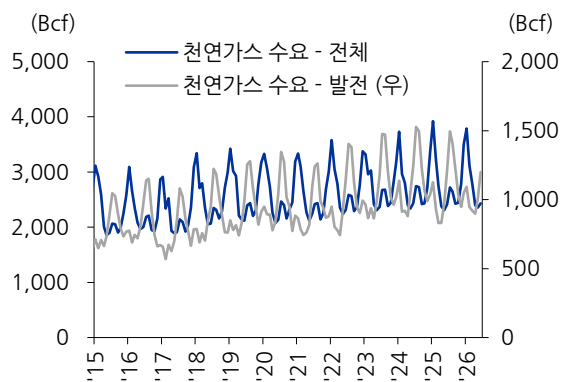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28. 미국 천연가스 재고 주간 변화량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29. 미국 천연가스 전체 및 발전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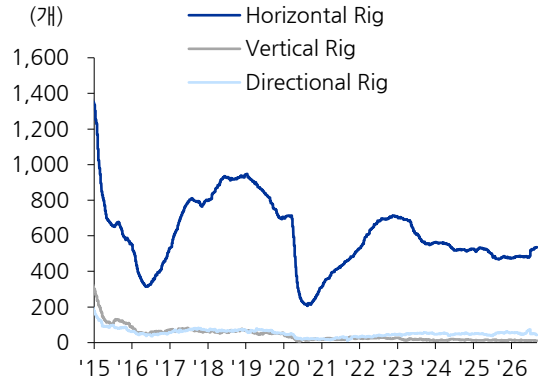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30.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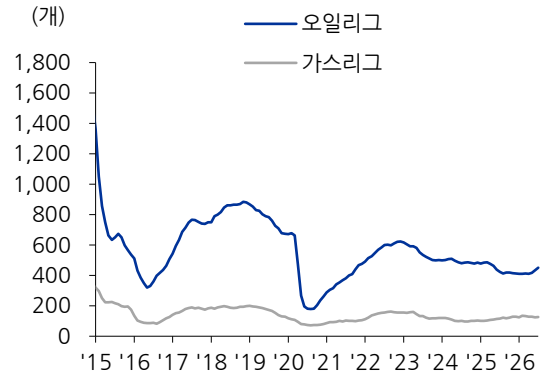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31. 미국 천연가스 시추 수평, 수직 리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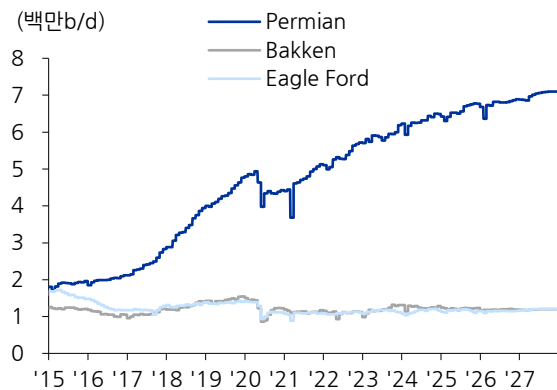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32. 미국 원유, 가스 리그 수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33. 미국 주요 셰일오일 생산량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34. 일본 원유 도입가격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6.30 기준)